

단꿈아이 독서지도안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 ④ 토끼전
글 설민석·최설희 | 그림 강신영 | 감수 류수열



- 이 책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4권을 활용하여 제작한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주)단꿈아이에 있습니다.

©Dankumi Corp.



<토끼전>을 한번에 정리해 보요!

1

병에 걸린 용왕



남해 용왕이 큰 병에 걸리자, 신선이 찾아와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어요.

4

궁지에 몰린 토끼



용궁에 온 토끼는 군사들이 달려들자, 그제서야 별주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

육지로 간 별주부



별주부

제가 토끼의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누구 하나 토끼의 간을 찾으려 나서는 이가 없는 가운데, 별주부가 선뜻 가겠다고 나섰어요.

3

용궁으로 온 토끼



육지로 간 별주부는 토끼를 온갖 좋은 말로 피어내어 용궁으로 데려왔어요.



5

토끼의 배짱과 꾀



토끼
저는 간을 넣었다
뻘다 합니다.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토끼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용왕은 꿈쩍없이 속아 넘어갔어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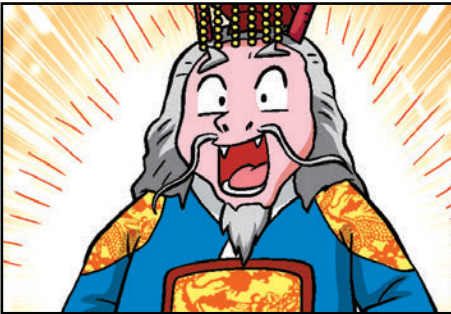
다시 육지로



무사히 육지로 돌아온 토끼는 별주부에게 간 대신 자신의 똥을 약으로 줬어요.

7

건강을 되찾은 용왕



용왕
토끼가 준 약이 명약이로다!

별주부가 바친 토끼의 똥을 먹고 용왕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갔어요.



교수님! <토끼전>은 어떤 책이에요?

◆ 동물을 통해 전해 주는 풍자와 교훈 이야기, <토끼전> ◆

지은이 알려지지 않음

시대적 배경 알려지지 않음

지은 시기 조선 시대

갈래 판소리계 소설, 우화 소설

주제 지혜와 용기의 중요성,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토끼전>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간 별주부와, 토끼의 이야기를 담은 고전 소설이에요. 토끼와 별주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헛된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려 주고 있어요.

한편 <토끼전>은 지배 계층을 비판하는 고전 소설로도 유명한데요, 당시 사람들은 한낱 '토끼'가 욕심 많은 지배 계층인 '용왕'과 '별주부'를 골탕 먹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토끼전>은 <별주부전>, <토생원전>, <수궁가> 등으로 불리는데요,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결말이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토끼가 똥을 내어 주지 않아 용왕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별주부가 용왕에게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도망을 치기도 한답니다.



▲ <토끼전>

❁ <토끼전>의 뿌리, <구토 설화>

<토끼전>의 근원이 된 이야기는 <구토 설화>예요. ‘구토(龜兎)’는 거북이와 토끼라는 뜻으로, <구토 설화>의 내용은 <토끼전>의 내용과 비슷해요. <구토 설화>의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어요. 신라 선덕 여왕 때, 김춘추(훗날 태종 무열왕)는 고구려에 갔다가 옥에 갇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인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고구려 장수가 김춘추에게 들려준 것이 바로 <구토 설화>예요. 김춘추는 <구토 설화>의 토끼처럼 말로써 위기를 극복해 무사히 신라로 돌아왔고,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었어요.

◆ 이 책을 함께 읽는 부모님·선생님께 ◆

<토끼전>의 토끼는 별주부가 용궁에 가면 훈련대장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허영심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토끼가 용궁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피를 부려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이러한 토끼의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고, 위기에 처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벗어나려고 하니깐요. 그러니까 <토끼전>은 어리석은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이야기에 불과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비춰 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끼전>은 옛날이야기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류수열 교수



설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 조선 시대에도 병원이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도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기관들이 있었어요.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의원, 도성 안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던 활인서와 혜민서를 꼽을 수 있어요. 또한, 오늘날의 개인 병원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약방도 있었지요.

❁ 활인서는 어떤 곳이었나요?

활인서는 조선 시대에 도성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던 곳이에요. ‘활인’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여 살린다는 뜻이지요. 활인서의 주요 업무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일이었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염병이 돌면 환자를 받아 그들에게 약이나 음식을 주고, 시신을 땅속에 묻는 일까지 담당했어요.

동대문 밖의 동활인서, 서소문 밖의 서활인서, 두 군데로 운영되었다고 해요.



▲ 한양 지도에 표기된 활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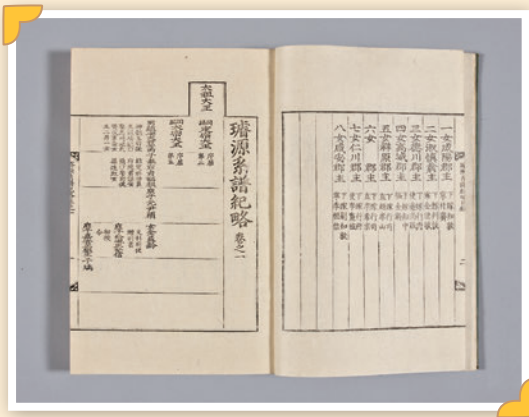
❁ 중인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나요?

중인은 조선 시대에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으로, 기술 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중인은 주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관청에서 일을 했어요.

도화서에서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화원, 내의원에서 왕족의 건강을 돌보는 의관,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했던 역관 등을 중인으로 들 수 있어요. 이 책에 나온 활인서의 의원도 중인 신분이었고요. 중인은 전문적이고 중요한 기술을 가졌지만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벼슬에 한계가 있었어요.

❁ 양반 족보를 사면 양반이 될 수 있었나요?

조선 시대 초기에는 양반이 얼마 없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점차 늘었어요. 이렇게 양반이 늘어난 이유는 돈으로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장사 등으로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에 걸맞은 신분 상승을 원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 곡식이나 뇌물을 바쳐서 관직을 사거나,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들이기도 했어요.



▲ 족보의 모습



설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봐요!

Q 용왕의 신하들이 육지로 나가기를 주저할 때, 별주부만이 선뜻 가겠다고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별주부는 용왕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한 충신으로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별주부는 자신은 육지에서도 살 수 있고, 등딱지를 이용해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여 용왕과 신하들을 설득하고, 마침내 육지로 가서 토끼를 데려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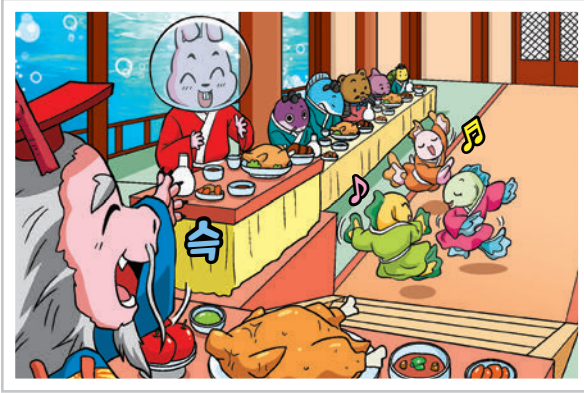


Q 토끼는 왜 별주부를 따라 용궁으로 갔을까요?

토끼는 별주부가 '토 생원님'이라고 높여 부르며 한껏 치켜세워 주자, 금방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글도 잘 쓰고, 풍채도 참 좋다는 등 듣기 좋은 말과 칭찬, 그리고 용왕이 벼슬까지 내린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그만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어요.



❁ 거짓말로 용왕을 속여 육지로 돌아온 토끼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 보세요!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위기 앞에서 번뜩이는 꾀로 자신의 생명을 구한 토끼는 대단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어쩔 것처럼 능청스럽게 말할 수 있었을까?

토끼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한 태도를 보여 줄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동물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용왕은 바닷속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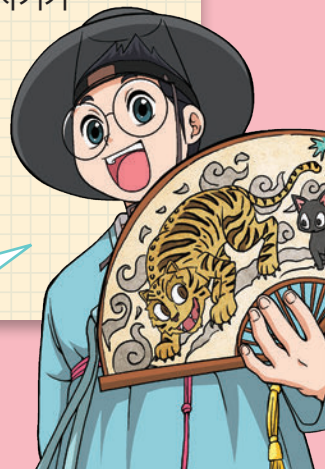
.....

.....

쏙쏙 들어오는 어휘력 노트

- 활인서** 조선 시대에, 한양에서 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를 말해요. P.18
- 벼슬아치** 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해요. P.19
- 중인** 조선 시대에,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을 말해요. P.19
- 충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이르는 말이에요. P.40
- 경박하다** 말과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것을 말해요. P.56
- 치켜세우다** 지나치게 높이 칭찬해 주는 것을 말해요. P.58
- 사대부** 벼슬이 높은 집안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P.63
-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거의 다 된 일을 마지막에 우연한 일로 망친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P.66
- 감언이설** 귀가 솔깃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꾀는 말을 뜻해요. P.75
- 맹랑하다** 하는 짓이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뚱뚱하고 영악한 것을 말해요. P.79
-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꾀를 내어 남을 속이려다 도리어 자기가 그 꾀에 속아 넘어간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P.89
-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P.98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해력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읽고 푸는 문해력 퀴즈

1 글을 읽고 알맞은 말에 ○해 보세요.

김 대감 : 감히 양반보다 신분이 낮은 (사대부/중인) 주제에!

2 용왕이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갈 신하를 찾을 때, 신하들이 말한 내용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 ① 꽃계 ● ● ㉠ 다리가 없다.
- ② 조개 ● ● ㉡ 옆으로만 걸을 수 있다.
- ③ 고등어 ● ● ㉢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3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보세요. ()

별주부: 아마 토 생원님은 육지 짐승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나실 테지요?

토끼: 어흠, 당연하지. 그나저나 나를 왜 찾아왔는가?

토끼는 별주부가 주자, 잔뜩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 ① 치켜세워 ② 깎아내려 ③ 업신여겨

4 <토끼전>의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 해 보세요.

- ① 토끼의 간을 찾아 육지로 간 신하는 별주부예요. ()
- ② 용왕은 육지에 간을 두고 왔다는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
- ③ 토끼를 등에 태우고 육지로 올라온 별주부는 계수나무에 있는 토끼의 간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

5 <토끼전>을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맞춰 보세요. ()

- ㉠ 별주부가 토끼를 온갖 좋은 말로 꾀어내어 용궁으로 데려왔어요.
- ㉡ 용왕이 병에 걸리자,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찾으러 육지로 떠났어요.
- ㉢ 토끼가 별주부에게 자신의 똥을 약으로 주었고, 이것을 먹은 용왕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 ㉣ 토끼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말하자, 용왕이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냈어요.

① ㉠-㉡-㉣-㉢

② ㉡-㉠-㉣-㉢

③ ㉡-㉠-㉢-㉣

④ ㉢-㉡-㉠-㉣

6 <토끼전> 등장인물의 대사를 읽고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

- ① 용왕: 불쌍한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내 주거라!
- ② 토끼: 나는 간을 넣었다 뺏다 할 수 있소!
- ③ 별주부: 제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데려오겠습니다!

7 글을 읽고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보세요. ()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그제서야 별주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서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토끼의 배짱과 번뜩이는 꾀에 용왕은 꼼짝없이 속아 넘어갔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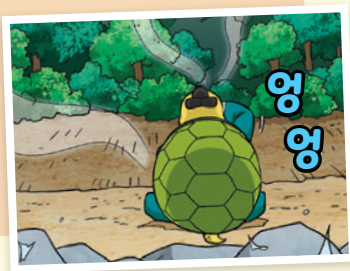
- ① 앓던 이 빠진 것 같다.
- ②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 ③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 ④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한 장으로 정리하는 독서 일기



미호의 독서 일기

1. 아무리 좋은 말도 지나치면 조심해야 한다. 토끼가 위험에 빠진 것은 별주부의 감언이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2. 눈앞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토끼의 배짱과 꾀가 정말 놀랍다.
3. 육지로 다시 돌아온 별주부가 토끼를 놓치고 영영 우는 모습을 볼 때 안쓰럽고 불쌍했다. 토끼가 명약을 만들어 주어서 정말 다행이다.



설쌤의 독서 일기

1.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토끼의 용기와 지혜를,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다.
2.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용왕의 태도는 바닷속 임금답지 않았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왕과 당당히 맞선 토끼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다.



_____의 독서 일기



❁ 재미있었던 장면, 베스트 3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notes.

❁ 인상 깊은 문장이나 대사, 베스트 3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notes.

정답 및 해설

1 정답 중인

해설 '중인'은 조선 시대에,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을 말해요.

2 정답 ①-㉠, ②-㉡, ③-㉢

3 정답 ①

해설 '치켜세워'는 '지나치게 높이 칭찬하여'라는 뜻이에요.

4 정답 ①-O, ②-O, ③-X

해설 계수나무에 간을 걸어 두었다는 토끼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별주부는 간 대신 토끼가 준 똥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5 정답 ②

해설 용왕이 병에 걸리자,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찾으러 육지로 떠났어요.(㉠) 별주부가 토끼를 온갖 좋은 말로 꾀어내어 용궁으로 데려왔어요.(㉡) 토끼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말하자, 용왕이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냈어요.(㉢) 토끼가 별주부에게 자신의 똥을 약으로 주었고, 이것을 먹은 용왕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아졌어요.(㉣)

6 정답 ①

해설 용왕이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낸 이유는 간을 얻기 위해서예요.

7 정답 ④

해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